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질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김상호, 김기정, 1985),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사회적응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은 물론, 심리·사회적 발달로 정서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문제, 또래관계 등의 여러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이처럼 정서변화가 급격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울, 불안이나 문제행동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박지연, 이은희, 2008; 이희경, 2007). 이러한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 관련하여 공감능력이 주목을 받아왔다(신경일, 1997). 청소년의 공감 능력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부적응과 교내집단 따돌림에 대한 동조현상을 억제시키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지현, 2002). 또한 공감능력부족은 비행의 원인이 되므로 친구간의 갈등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공격적인 사람에게는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정선, 2010).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정서적 요인으로 꼽히는 공감(empathy)은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의 기초가 된다.

공감은 강조되는 특징에 따라 요소별로 분류되는데 공감의 하위 구성요소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적 또는 표현적 요소 등으로 세분화된다(서지현, 2005 재인용).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요소란 타인이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타인의 생각, 감정, 상황을 정확히 알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as if) 느끼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요소는 정서적으로 타인과의 경험을 공유하는(느끼는) 공감에 의한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고선영, 2004; 사

미경, 2009). 의사소통적(표현적) 요소는 이러한 인지적·정서적 요소들이 내적 과정을 거친 결과로 나타나는 공감적 언어표현과 조력 행동 등으로 구성된다(신경일, 1994). 공감(empathy)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며(Redmond, 1989), 부모-자녀 관계로부터 대인관계의 효율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성일, 2008).

부모와의 관계특성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특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유아가 생애초기에 가졌던 관계경험, 특히 주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론이 대상관계이론이다(김진숙, 2000). 대상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며,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가 아닌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준다. 이러한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각하고 있는 대상관계 수준은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사훈, 1998; 김정은, 2012; 김지현, 2002; 사미경, 2009; 조혜리, 2009; Tia & Deborah, 2012).

대상관계이론은 관계의 추구를 인간의 본능으로 보고(Fairbairn, 1954; Klein, 1952), 개인이 외부세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본 방식을 결정짓는 심리내적 구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분리-개별화는 대상관계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동들의 원리를 잘 설명해준다.

분리개별화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Mahler, Pine와 Bergman(1975)이 말한 3세 무렵의 분리개별화

와 함께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Blos(1979)는 Mahler가 말한 생애 초기 3년간의 유아와 어머니의 분리경험을 일차적 분리개별화라고 하였고 청소년기 발달을 이차적 분리개별화과정(secondary individuation process)이라고 하였다. 일차적 분리개별화가 어머니와의 물리적 독립성을 인식하고 어머니의 존재를 내면화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 이차적 분리개별화는 청소년기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가는 과정으로 유아기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신의 자의식을 재조직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즉, 부모에 대한 의존관계를 거부하고 내재화된 영향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되어 스스로 심리적, 신체적, 성적 변화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된 자아의 적응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유아의 심리적 탄생의 과정을 분리개별화로 연구한 Mahler의 영향으로 대상관계를 연구할 때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정도를 측정하여 사용하기도 하며(김진기, 2007; 민선희, 2009; 사미경, 2009; 이순락, 2009; 이지현, 2013) 본 연구에서도 대상관계수준을 측정하는데 분리개별화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감능력을 복합적 관점으로 보고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본 Davis(1983)의 관점에 입각하여 공감능력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공감능력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대상관계수준, 어머니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자기조절능력, 자기위로능력, 사회적지지 등이 있다(박정희, 2009; 사미경, 2009; 지소라, 2009; 황희정, 2013). 자기위로능력은 자신의 이해수준에 영향을 미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지각된 사회

적 지지는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변인 모두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윤희, 2008; 김지영, 1995; 마정건, 1988; 사미경, 2009; 이미영, 2009). 본 연구는 대상관계 수준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관계를 밝히고자,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근 대상관계와 공감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김사훈, 1998; 김정은, 2012; 김지현, 2002; 사미경, 2009; 조혜리, 2009; Tia & Deborah, 2012)이 수행되면서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제 3의 심리적인 변인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두 변인을 매개하는 심리적 변인을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의 매개변인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발견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인인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상관계 수준 및 공감능력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위로능력은 자율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능력인 동시에 심리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Glassman(1989)은 자기위로가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법과 타인이 위로해주는 것 모두를 수용하는 다양한 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태도들을 위로의 수용능력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위로의 수용능력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신체적으로 위로

하기(physicalsoothing)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스스로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위안 받을 수 있는지, 둘째 회복력(resilience)은 기분 나쁜 일에 대해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지, 셋째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기분 나쁜 일에 대해 타인에게 드러내고 이야기함으로써 위로 받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고, 넷째 스스로 위로하기(self-soothing)는 기분이 나쁠 때 스스로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는 능력을 말한다(박효서, 1999 재인용). 이러한 자기위로능력은 생애 초기부터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Moser(1991)는 자기위로라는 기제의 출현을 성장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보고, 자기위로능력이 부모로부터의 공감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양육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했다. 유아는 불안, 긴장을 경험할 때 즉각적으로 부모의 공감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때 부모가 충분히 달래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유아는 공감적인 양육을 내재화할 수 있게 된다(Kohut, 1971). 유아가 엄마로부터의 고립과 엄마와의 융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나가면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자기가 별개의 개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리-개별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겪어내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존재한다는 대상항상성을 형성할 수 있다(Mahler et al., 1975). 이처럼 대상항상성을 확고히 획득한 개인은 불안과 긴장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실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전 대상이 제공해주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되살려서 자신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분리 개별화 단계를 충분히 공감적으로 거치지 못하였다면 자기위로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스트레스나 불안이 유발될 때 지속적으로 외부 대상에 의존하여

달래려는 경향을 보인다(William, Jamie, & Kenneth, 1997).

자기위로능력과 대상관계 및 공감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김윤희(2008)는 생애 초기에 획득한 자기위로 능력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위로능력으로 인하여 개인은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면서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로 회복해 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지연, 민선희와 김미진(2010)은 대상관계수준을 나타내는 분리-개별화와 자기위로능력이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자기위로능력은 스스로 위로하기와 자기노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김지영(1995)은 공감정도와 가족, 친구에 대한 자기노출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공감정도가 높은 경우에 자신에게 더 친밀하고 익숙한 가족, 친구에게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공감과 자기위로능력의 하위요인인 자기노출은 둘 다 관계지향적인 촉진 요소 이면서(마정건, 1988) 자기노출은 공감적 이해를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Young, 1988). 또한 자기위로의 하위 요인인 자기노출의 다른 의미인 자기개방과 공감능력이 정적상관이 있다(이미영, 2009)는 연구도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은 자기위로능력과 공감의 관계를 직·간접으로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대상관계 수준과 자기위로능력(박효서, 1999; 유효순, 2003; 전희정, 1999), 자기위로능력과 공감(사미경, 2009; 이미영, 2009)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

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개념화되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측면이다. 기능적인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이것을 사회적 지수로 삼는 경우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중요하게 다룬다(서희채, 2005). 박지원(1985)은 기존의 개념을 통합하여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가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지지 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의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 받는 지지(상황중심지지)와 사회 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자존감 지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자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에 대한 지각정도로 나누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일반적으로 사회 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을 사회화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변지현, 2002).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게서 지지를 제공 받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지지로써 진정한 의미로 이용될 수 없다. 즉 적응을 예언하는데 있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보다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중재되어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서희채, 2005).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 제공자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은 부모, 친구, 교사로 제시되고 있다(이영자, 1994; 황수정, 2000). 특히 수직적인 관계로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가진 부모나 가족과의 기본적인 애착과 수평적 관계로 친구관계가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보호와 안전이 주어지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는 협동이나 경쟁, 그리고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적절한 관계와 정신적인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하다(심희옥, 1999). 고소희(2000)는 주요 타자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이 점차 아이의 내면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상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능력으로 내재화되어 안정된 정체감의 근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나타내었으며 김현숙(2010)은 대상관계수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관계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보인다고 나타내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분리-개별화의 하위변인들 중 부갈등적 독립, 모갈등적 독립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부정서적 독립, 모정서적 독립과는 부적상관을 보인 연구도 있다(서희채, 2005). 사회적 지지와 공감과의 관계에서 이용철(2009)은 사회적 지지와 공감이 정적상관을 보이면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공감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공감과 함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인 안녕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심리적 안녕감에 공감과 사회적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상관계수준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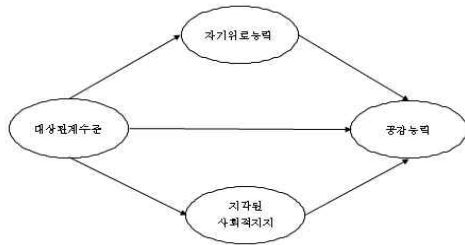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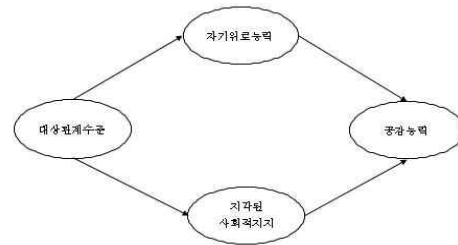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완전매개)

각된 사회적지지(김수진, 2000; 윤소연, 1993; 이상은, 2009),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공감(변지현, 2002)과의 관련성을 직·간접으로 밝힌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공감능력과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돕는 대상관계수준에 관련성이 입증되면서 청소년시기에 중요요인으로 꼽히는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자기위로능력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내부적 요인으로 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분이 있긴 하나 지지망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주변으로부터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으로 보았다.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현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 정서를 높여 주고 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공감적 성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 및 공감능력 그리고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그 영향력 및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영향요인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이론과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의 관계는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매개되는가?’이다. 기존 연구를 고려했을 때 자기위로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대상관계수준이 직접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연구가설은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위로 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그림 2의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J지역의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과 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집에 선정된 학교를 본 연구자가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590명의 자료가 수거되었으며, 불성실응답과 무응답 27명을 제외한 563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최종분석 대상자 중 남학생은 263명(46.7%), 여학생은 300명(53.3%)이었으며,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104명(18.5%), 중학교 2학년이 119명(21.1%), 중학교 3학년이 61명(10.8%)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116명(20.6%), 고등학교 2학년이 163명(29.0%)로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분리-개별화 척도

청소년의 대상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진기(2007)의 척도를 바탕으로 이지연 등(2010)이 사용한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Individuation Scale: SIS) 34문항을 사용하였다. 34문항의 하위 구조는 개별화와 공생관계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제 1요인은 비교적 건강한 분리에 관한 내용들과 이에 더해 불안과 두려움의 결과로 자기 안으로 몰입하거나 의존 욕구를 부정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화 및 가독립(Individuation-Pseudo Independent)요인’이라 한다. 제 2요인은 대상에게 삼켜지는 것의 두려움, 분리 불안 및 대상과 공생관계로 남아 있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생관계 및 1차적 불안’이라 하며 개별화 요인이 공생관계 요인보다 발달단계상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박경순, 1997).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개별화의 경우 ‘과거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나만의 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 ‘나는 누군가 나를 돌보아 주던 어린 시절이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생관계의 경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내게 매우 중요하다’,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부모님께 의존할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채점되는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 이는 곧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대상관계 수준이 높은 것이다(최선미,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각 문항의 점수를 역채점 함으로써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관계수준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계수 .30이하인 3, 18, 25번 문항을 제거하고 나머지 문항들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지연 등(2010)의 연구에서 보고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공감 능력 척도

공감능력 측정은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와 Bryant(1982)의 정서 공감 척도(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를 박성희(1997)가 변안·수정·보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산출한 타당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공감’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 서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 자신이 영화, 소설, 연극 등 가상적인 상황 속의 인물이 되어 보는 상상력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에 대해 온정,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나 타인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공포, 불편함 등의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 의미의 문항을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계수 .30이하인 17, 23항을 제거한 나머지 문항만 사용하였다. 김정은(2012)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자기위로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Glassman(1989)이 개발한 자기위로능력 척도(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SR) 전체 45문항 중 전희정(1999)이 번안, 예비조사를 통해 29문항을 선정한 것을 다시 고소희(2000)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스스로 위로하기(self-soothing) 11문항과 자기노출(self-disclosure) 7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를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계수 .30이하인 13, 18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문항만 사용하였다. 이지연 등(2010)의 연

구에서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2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부모지지와 교사지지, 또래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Noten(1994)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이미라(2001)가 청소년에 맞게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은 지지원이 부모지지 9문항, 교사지지 9문항, 또래지지 9문항으로 나뉘고 각각의 지지원에서 다시 4개의 지지영역으로 나뉘어 정서적 지지 3문항, 정보적 지지 2문항, 물질적 지지 2문항, 도구적 지지 2문항의 총 2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지지의 문항내용은 부모, 교사, 또래가 정서적으로 관심과 격려, 사랑을 주고 있다고 느끼는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주는지,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지, 나에게 대해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며 칭찬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미라(2001)의 연구에서 보고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SPSS 18.0 통계프로그램과 AMOS 20.0(Analysis of Moment Structure)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측정변

인(대상관계수준,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알아보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도구와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및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경우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주는 χ^2 지수와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Model), TLI(Tucker & Lewis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 ML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주요 변인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하위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변인간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켜야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정상분포조건이 왜도 < 2, 첨도 < 7인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이의 상관계수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계수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계수 역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들과 측정모형의 측정변인의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563)

	공감능력	대상관계수준	자기위로능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	M	SD
공감능력	-	.22**	.21**	.24**	2.85	.30
대상관계수준		-	.55**	.45**	3.56	.56
자기위로능력			-	.42**	3.23	.44
지각된 사회적 지지				-	2.96	.38

** P<0.01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부합하는 요인들을 제외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측정변인은 각 구인들을 측정하는 개개 문항들을 묶은 점수(item parcels)나 하위요인 점수로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하위변인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을 때 하위변인의 문항 수가 너무 많고 탐색

적 요인분석에서 요인계수가 낮은 문항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고 남은 문항들을 가지고 문항꾸러미를 만들었다. 사회적 지지는 하위요인을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관계수준,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은 추출 요인의 수를 1개로 지정하고, 문항들의 요인계수에 근거하여 .30이하

표 2. 하위변인별 상관계수 및 기술적 통계치 (N=56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																			
2	.12**	-																		
3	.21**	.16**	-																	
4	.26**	.28**	.26**	-																
5	.28**	.35**	.31**	.32**	-															
6	.26**	.32**	.32**	.29**	.41**	-														
7	.43**	.11**	.07	.15**	.20**	.13**	-													
8	.17**	.16**	.19**	.01	.05	.04	.50**	-												
9	.12**	.03	.15**	-.02	.08*	.10*	.39**	.32**	-											
10	.38**	.12**	.12**	.21**	.22**	.18**	.49**	.32**	.28**	-										
11	.16**	.14**	.11*	.07	.11*	.09*	.53**	.54**	.46**	.40**	-									
12	.21**	.10**	.02	-.01	.08	.10*	.33**	.50**	.31**	.26**	.37**	-								
13	.06	-.02	.22**	-.04	-.08	.14**	.27**	.49**	.25**	.11*	.35**	.36**	-							
14	.05	.22**	.14**	.10*	.16**	.27**	.08	.02	.04	.05	.08	-.03	.10*	-						
15	.22**	.09*	.17**	.15**	.28**	.25**	.02	.09*	.29**	.29**	.26**	.03	-.02	.27**	-					
16	.17**	-.01	.01	-.03	.07	.03	.26**	.29**	.33**	.27**	.41**	.24**	.18**	-.01	.31**	-				
17	.10*	.18**	.02	.04	.18**	.13**	.24**	.54**	.15**	.26**	.37**	.30**	.20**	.19**	.20**	.24**	-			
18	.03	.07	.00	.03	.16**	.12**	.01	.21**	.11**	.20**	.21**	.04	.06	.10*	.20**	.17**	.40**	-		
19	.17**	.18**	.14**	.13**	.24**	.22**	.07	.19**	.27**	.20**	.33**	.11**	.05	.19**	.36**	.25**	.32**	.27**	-	
<i>m</i>	3.19	2.75	2.58	3.02	2.76	2.55	4.02	3.60	3.20	3.78	3.71	2.93	2.96	3.23	3.44	3.23	3.08	2.84	2.97	
<i>sd</i>	.43	.48	.73	.49	.40	.44	.69	.86	.95	.82	.93	.74	.94	.75	.62	.88	.54	.51	.50	
왜도	-.40	-.14	-.19	-.53	-.11	-.22	-.66	-.40	-.19	-.33	-.57	.08	-.00	-.23	-.20	-.14	-.45	-.48	-.26	
첨도	.59	.61	-.49	.50	.92	.89	-.01	-.22	-.31	-.21	.00	.01	-.35	.49	.24	-.10	1.05	1.40	1.34	

1: 공감1, 2: 공감2, 3: 공감3, 4: 공감4, 5: 공감5, 6: 공감6, 7: 대상관계1, 8: 대상관계2, 9: 대상관계3, 10: 대상관계4, 11: 대상관계5, 12: 대상관계6, 13: 스스로위로1, 14: 스스로위로2, 15: 자기노출1, 16: 자기노출2, 17: 부모지지, 18: 교사지지, 19: 또래지지

* $P < 0.05$, ** $P < 0.01$

인 문항을 제외하고 유사 개념을 측정하는 나머지 문항들을 묶어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척도는 KMO값이 .80이상이며 Bartlett 구상성검증에서 $p=.000$ 으로,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요인회전방법은 직교회전(varimax)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대상관계수준은 대상관계1(9, 15, 23, 27, 30, 31문항), 대상관계2(7, 13, 28, 32, 34문항), 대상관계3(8, 16, 17, 26, 33문항), 대상관계4(1, 5, 14, 24, 29문항), 대상관계5(4, 11, 19, 20, 22문항), 대상관계6(2, 6, 10, 12, 21문항)에 할당하여 측정변인이 구성되었

다. 공감능력은 공감1(2, 8, 12, 13, 14, 21문항), 공감2(16, 22, 25, 28문항), 공감3(4, 7, 10, 20문항), 공감4(1, 9, 11, 24, 26문항), 공감5(3, 5, 6, 19, 29문항), 공감6(15, 18, 27, 30문항)에, 자기위로능력은 스스로위로1(14, 15, 16, 17문항), 스스로위로2(5, 6, 7, 8, 12문항), 자기노출1(1, 3, 9, 10문항), 자기노출2(2, 4, 11문항)에 할당되어 측정변인이 구성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요인들로 이루어진 측정변인이 얼마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

표 3.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신뢰도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RW)	표준화 계수(SRW, β)	표준오차 (S.E.)	C.R.	P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대상관계 수준	대상관계1	.64	.70	.04	16.26	-	.88
	대상관계2	.78	.67	.06	14.37	***	
	대상관계3	.73	.56	.06	12.55	***	
	대상관계4	.53	.48	.05	11.09	***	
	대상관계5	1.00	.78	-	-	***	
	대상관계6	.46	.45	.05	9.76	***	
공감 능력	공감1	1.00	.38	-	-	-	.78
	공감2	1.42	.49	.21	6.77	***	
	공감3	1.69	.39	.28	5.94	***	
	공감4	1.43	.48	.21	6.67	***	
	공감5	1.62	.66	.22	7.52	***	
	공감6	1.65	.62	.22	7.39	***	
자기위로 능력	스스로위로1	.74	.37	.10	7.35	***	.72
	스스로위로2	.68	.42	.11	5.94	***	
	자기노출1	.76	.57	.08	10.11	***	
	자기노출2	1.00	.52	-	-	-	
지각된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1.19	.65	.12	9.88	***	.91
	교사지지	.81	.48	.10	8.26	***	
	또래지지	1.00	.60	-	-	-	

*** $p<.001$

다. 측정모형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20.0 program을 이용하였고, 모수추정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잠재변수에 적재되는 측정변인들 중 하나의 변수에 임의적인 수치인 “1”을 고정시켜 잠재변수를 척도화하고, 개념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하였다(김계수, 2006). 측정모형 검증에는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을 측정하는 6개의 측정변인(대상관계1, 대상관계2, 대상관계3, 대상관계4, 대상관계5, 대상관계6),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6개의 측정변인(공감1, 공감2, 공감3, 공감4, 공감5, 공감6), 자기위로능력을 측정하는 4개의 측정변인(스스로위로1, 스스로위로2, 자기노출1, 자기노출2),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3개의 하위요인(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이 각각 사용되었다. 표 3은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수의 모수치 추정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표 4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1의 수준에서 회귀계수(β)가 .30이상으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각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표 4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값,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

=313.527, $df=120$, $N=563$, $p<.001$, CFI=.931, TLI=.902, RMSEA=.05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χ^2 값을 제외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에 명확한 해석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 CFI, TLI, RMSEA를 모형적합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기준으로 TLI와 CFI는 .9 이상일 경우가 좋은 적합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RMSEA 값은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8이하는 괜찮은 적합도, .10은 보통 적합도, .10 이상은 나쁜 적합도로 해석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모형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대안 모형인 완전매개모형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부분매개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268.561$, $df=106$, $N=563$, $p<.001$, CFI=.942, TLI=.907, RMSEA=.052로 나타났으며, 완전매개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283.670$, $df=107$, $N=563$, $p<.001$, CFI=.937, TLI=.900, RMSEA=.054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두 모형이 모두 수용할만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다.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도(df)가 1 증가했을 때 χ^2 의 차이값이 임계치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563)

적합도	χ^2	df	p	CFI	TLI	RMSEA
기준값	-	-	-	.9이상	.9이상	.1이하
측정값	313.527	120	.000	.931	.902	.054

표 5.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비교(N=563)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부분매개모형	268.561	106	.000	.942	.907	.052
완전매개모형	283.670	107	.000	.937	.900	.054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15.109, \Delta df=1$					

3.84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분매개모형이 경로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설명량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RMSEA, CFI, TLI 값 등의 적합도 지수와 χ^2 차이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완전매개모형보다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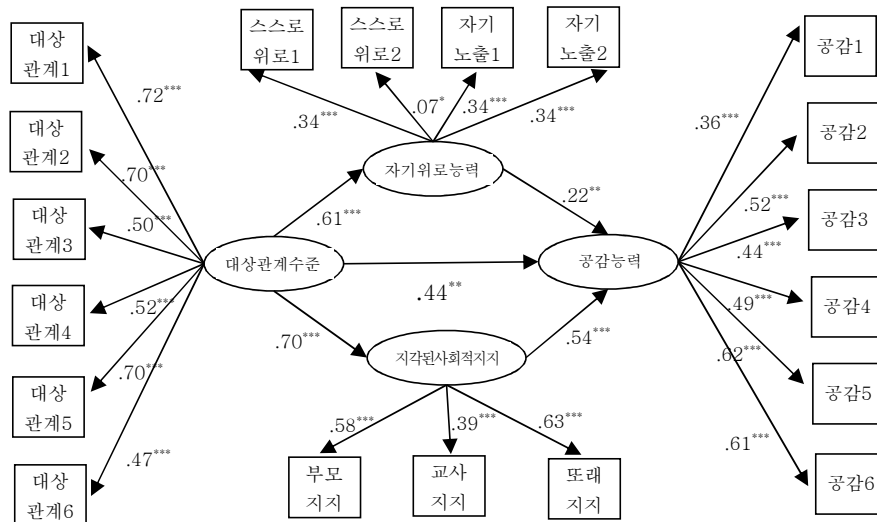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매개모형의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경로간의 계수를 비롯한 모수 추정치를 확인하였으며, 모수추정결과를 그림 3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매개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매개모형의 유의한 경로가 밝혀짐에 따라, 표 7에서 대상관계수준, 자기위로능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효과성의 분해에서 제시된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검토는 Sobel 검정방식¹⁾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Sobel 검정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

준오차(standard error: s)를 나타내며 분모의 S_a 와 S_b 는 각각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Z_{ab}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관계수준에서 자기위로능력으로 가는 경로의 총 효과는 .61로, 자기위로능력에 대상관계수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위로능력에서 공감능력으로 가는 경로의 총 효과는 .22로, 자기위로능력 역시 공감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이 갖는 매개효과는 .13(=.61×.22)로 유의하였다. 또한 대상관계수준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가는 경로의 총 효과는 .70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도 대상관계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 공감능력으로 가는 경로의 총 효과는 .54로 공감능력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는 .38(=.70×.54)로 유의하였다. 공감능력에 대한 대상관계수준의 직접효과는 .44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51(=.13+.38)으로 총 효과는 .95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상관계수준과 공

1) Sobel test : $Z_{ab} = \frac{ab}{\sqrt{b^2 s_a^2 + a^2 s_b^2}}$



* $p < .05$, ** $p < .01$, *** $p < .001$, 제시된 모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3. 연구모형 검증결과

표 6. 매개모형의 모수치 추정

경로	비표준화 계수(RW)	표준화계수 (SRW, β)	표준오차 (S.E.)	C.R.	P
대상관계수준 → 자기위로능력	.48	.61	.08	8.43	***
대상관계수준 → 공감능력	.20	.44	.06	3.15	.002
대상관계수준 → 지각된 사회적 지지	.63	.70	.08	8.21	***
자기위로능력 → 공감능력	.11	.22	.04	3.01	.003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공감능력	.27	.54	.07	3.90	***

*** $P < .001$

표 7. 매개모형 내 경로의 총효과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대상관계수준 → 공감능력	.44	.51	.95
대상관계수준 → 자기위로능력	.61	-	.61
자기위로능력 → 공감능력	.22	-	.22
대상관계수준 → 지각된 사회적 지지	.70	-	.70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공감능력	.54	-	.54

감능력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위로 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는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에서 $p < .001$ 수준에서 자기위로능력을 통한 매개모형의 Z값이 2.50,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한 매개모형의 Z값이 3.46으로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 보았다.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상관계 수준,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검토한 후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청소년의 대상관계 수준과 자기위로능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 공감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대상관계수준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대상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은 인지적 공감과 공감적 관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보고한 김사훈(1998)의 연구결과와 견강한 대상관계패턴을 형성하지 못하면 이것이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개별화를 어렵게 하여 타인의 사정에 대해 알고 공감하기 어렵게 된다고 한 김창대(199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

이 한다고 할 수 있다. Tia와 Deborah(2012)는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공감간의 관계를 보면서 안정된 아동들이 더 높은 정서조절과 공감을 보였으며, 공감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친화적으로 행동하였음을 보고하여 청소년과 아동 모두 부모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대상관계수준과 자기위로능력이 정적상관을 보인 것은 대상관계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위로능력이 높다는 것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Moser, 1991). 부모로부터 공감적인 양육의 경험은 유아에게 점차 내면화되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상황 아래서 내면화된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달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전희정, 1999).

대상관계수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나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자신을 거부하기보다는 보살펴주고 수용해주었다고 지각하는 경우 긍정적인 자기 지각 및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지니며, 이는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연결된다고 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한다고 할 수 있다(윤소연, 1993). 또한 일반 성인의 경우, 부모애착 수준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김수진, 2000)와 부모와의 초기 관계가 긍정적일 때, 아이들은 자신이 지지받고 있으며 관심 받고 있다고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이상은, 2009)와 일치한다. 자기위로능력과 공감능력간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측면이 타인에게 확장되어 타인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Omwake(1954)의 견해와 일치하며 자기위로의 하위 요인인 자기노출의 다른 의미인 자기개방과 공감능력이 정적상관이 있다(이미영, 2009)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객관적 관점에서 자기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개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인식이 높아지고 자신의 경험과 문제를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공감능력 역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용철(2009)의 연구에서는 공감과 사회적 지지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여 사회적 지지를 위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지체계를 제공한다면 아동의 긍정적인 강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변지현(2002)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타인에 대한 공감도 더욱 잘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또래의 지지가 공감에 가장 큰 상관을 보여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보고하였다.

둘째,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의 초기 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수준을 높여줘서 공감능력을 잘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초기 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기위로능력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인지적, 정서적 공감경험을 높여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과 부모사이의 분리-개별화정도가 높을수록 대상관계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높은 대상관계수준은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높여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 서보려는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대상관계수준이 자기위로능력을 향상시키고(이지연 등, 2010),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정서적 적응을 돕는다(손영미, 2012)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생의 초기부터 형성되는 부모와의 관계가 공감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Goleman, 1995; Hoffman, 1982; Koestner, Franz, & Weinberger, 1990). 또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정서를 잘 조절하여 타인에 대해 좀 더 공감적이라는 연구결과(Tia & Deborah, 2012)를 토대로 부모-자녀관계와 정서적 측면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비록 초기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더라도 긍정적인 지지와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면 자기개방을 증가시키고 타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이 증가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와 학교 및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수준은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각각 매개되어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청소년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했음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찾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내적인 능력인 자기위로능력과 생활 속의 인간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느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각각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는 한 개인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통한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간의 관계성을 보다 정교화시킴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다양한 변인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사회의 무관심과 개인주의의 급증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J지역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연

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역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성별에 따라 양육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대상관계수준은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이러한 성별 간 차이가 자기위로능력과 공감능력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의 학년수준 및 계열을 나누어 각 학년의 특성과 학교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감능력 척도에서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있는데, 표현적 공감정도를 표준화한 척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공감능력은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표현)적 요소인 3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3요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감능력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관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분리-개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척도가 대상관계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바, 이후 연구에서 적합한 청소년용 대상관계수준 척도의 개발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고, 각각의 변인이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관하여 검증하였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포함한 매개모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선영 (2004). 시설수용소년범의 공감능력 차이: 범행위험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소희 (2000). 성인애착유형이 자기위로능력과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 (2006).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 김사훈 (1998). 대학생의 초기 대상관계와 공감능력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호, 김기정 (1985). 인간주의 교육과 행동주의교육. 서울: 문음사.
- 김성일 (2008). 어머니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 발달: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15(5), 1-21.
- 김수진 (2000).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와 정서경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12).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공감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김지영 (1995). 정신 간호사의 공감정도와 자기노출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기 (2007). 대상관계 수준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정서 표현의 양가감정과 부정적기분조절기대치를 매개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2000). 대상관계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8(2), 137-163.
- 김창대 (1999).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집단 따돌림현상. 청소년상담연구, 1(7), 7-25.
- 김현숙 (2010). 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정건 (1988).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선희 (2009).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순 (1997). 결혼갈등과 우울감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 문음사.
- 박정희 (2009).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 이은희 (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83-101.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효서 (1999). 자기위로능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 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지현 (2002). 사회적 지지의 효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공감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미경 (2009).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현 (2005).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반사회성 및 공감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채 (2005). 부모애착, 사회적지지,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일 (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9, 1-37.
- 신경일 (1997). 폭력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대학상담연구, 8(1), 63-92.
- 심희옥 (1999).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가족 친구의 지원 및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6), 11-22.
- 유효순 (2003).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0(2), 19-30.
- 윤소연 (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성격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2009).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은 (2009). 도움받기와 도움주기, 공감 및 정서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락 (2009). 대상관계수준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 (1994).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철 (2009). 희망, 공감,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2010). 인지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민선희, 김미진 (2010).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과 낙관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8(2), 13-22.
- 이지현 (2013).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2007). 일반계제: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51-766.
- 전희정 (1999). 청소년의 자기위로능력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리 (2009). 양육행동, 공감능력, 분노표현 및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소라 (2009).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미 (2003). 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 관계 수준과 치료적 동맹.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수정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Fairbairn, W. R. D. (1954). Observations on the Nature of Hysterical State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27*, 105-125.
- Glassman, E. J. (1989).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Canada: York Univ.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Hoffman, M. L. (1982). The measurement of empathy. In C. E. Izard(Ed.),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279-2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Klein, M. (1952). Some theoretical conclusions regarding the emotional life of the infant. New York: Delacorte Press.
- Koestner, R., Franz, C., & Weinberger, J. (1990). The Family origins of Empathic Concern: A 2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709-717.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
- Moser, M. L. (1991). *Transitional obje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soothing mechanism in latency aged childre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No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Omwake, K. T. (1954). The relation between acceptance of self and acceptance of others shown by three personality inventori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8*(6), 443-446.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decentering) in human relation.

- Human Relations*, 42, 593-605.
- Tia, M. P., & Deborah, J. L. (2012). Attachment security and child's empath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8(1), 1-21.
- William, C., Jamie, H. A., & Kenneth, S. R. (1997). *Transitional objec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250-255.
- Young, J. C. (1988). Rational for clinician self-disclosure & research agenda.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4), 196-199.
- 원 고 접 수 일 : 2014. 01.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3. 15
게 재 결 정 일 : 2014. 04. 17

The Mediating Effect of Soothing Abilit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Object Relation Level and Empathic Ability of Adolescence.

Seul-ae Kim

Jung Ha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oothing abilit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object relation level and empathic ability of adolescence. The 563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South Korea and answered questionnaires in which their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empathic ability, self-report of soothing abilit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level were measured. The correlational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ere employed to evaluate the hypothesized model. Results revealed that;; the object relation level, soothing abilit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pathic ability. Two models were compared in terms of model fit and its appropriateness. Findings in this study showed that the link between object relation level and empathic ability was partial mediated by soothing abilit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object relation level, empathic ability, soothing ability, perceived social support, adolescent*